

계구

수많은 신전을 거느린 거대한 신사는 일본 전국 곳곳에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우사 신궁은 같은 신을 모신 산사이 2곳이나 있는 희귀한 신사입니다. 오구라산 정상에는 신사의 조구(上宮, 위쪽 신사)가, 오구라산 기슭에는 계구(下宮, 아래쪽 신사)가 자리해 있는데 이들 모두가 하치만 신과 히메 대신, 진구 황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사 신궁을 방문할 때 양쪽 모두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예로부터 지역에서는 ‘만약 계구에 가지 않으면, 참배는 절반밖에 달성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계구는 조구가 세워진 후 약 100년이 지난 9세기 초에 창건되었습니다. 모셔진 신들은 동일하지만 그 효험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구의 하치만 신은 나라의 수호자로 숭배되고 계구에서는 농업이나 어업 등 일반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일설에 따르면 당시 조구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참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참배하는 계구와 차별화되었다고 합니다.

계구는 과거에 신들에게 바칠 신성한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신관들이 일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계구는 조구 본전(本殿)에서 대규모의 수리가 이루어질 때 조구의 신들을 일시적으로 모시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계구는 1817년~1826년에 재건되었다가 쇼와의 대재건이 이루어지면서 1939년에 개축되었습니다.